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2.2.11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美, ISIS 수괴 「알 쿠라이시」 제거
  - 2.3 美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당일 새벽 시리아 북서부에서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으로 ISIS의 수괴 「알 쿠라이시」\*(46세)를 제거했다고 발표
  - \* '19.10월 미군 군사작전으로 ISIS 수괴 「알 바그다디」 사망 후 새로운 지도자로 선임된 자로, 미국('20.3월) 및 UN('20.5월)에서 국제테러리스트로 지정
- 美, '어린이용 소총' 판매 예정 논란 확산
  - 2.5 미국 총기 제조회사(WEE1 TACTICAL, 일리노이주 소재)가 미군 소총(M-16)의 민수용 소총인 AR-15에서 크기·무게를 줄인 어린이·청소년용 소총(JR-15)을 판매 예정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 확산
  - \* AR-15대비 크기는 20% 작고, 무게는 1.04kg(판매가격 379달러, 한화 약 46.5만원)
- 美, 거액의 현상금 걸고 ISIS-K(호라산 지부) 수괴 수배
  - 2.7 美 국무부는 ISIS-K(호라산 지부)를 이끌고 있는 「사나울라 가파리\*」를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1천만 달러(한화 120억여원)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본격 수배 돌입
  - \* 同人是 지난해 8월 발생한 카불공항 테러 사주 혐의를 받고 있으며,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
- 美 중부사령관, UAE에서 '사드(THAAD)' 첫 실전 사용 확인
  - 2.4 「매켄지」 美 중부사령관은 최근 영상회의(2.3)에서 지난 1.17 예멘 후티 叛軍이 UAE 수도 아부다비를 공격할 당시 '사드'(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)가 가동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고 언급

## 아 · 태평양

- 아프간, 탈레반 집권 후 언론환경 갈수록 악화
  - 2.5 현지언론은 탈레반의 아프간 집권 후 언론탄압·경제 붕괴 등으로 543곳의 언론사 중 318개 이상이 폐업\*하고 5,069명이던 언론인도 2,334명으로 감소하는 등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
- 파키스탄, '파키스탄탈레반(TTP)' 총격으로 정부군 5명 사망
  - 2.5 파키스탄 軍당국은 자국 북서부 카이버팍툰콰주에서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이 아프간 국경 너머에서 총격을 가해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군인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
- 경기 연천군 주민, '이슬람 야영장' 조성 계획 반발
  - 2.3 경기 연천군 주민들은 (재)한국이슬람교의 신서면 도신리 23,363㎡ 부지 야영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"무슬림 집합체가 될 야영장의 국제테러조직과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"라며 반발

## 중 동

- 이스라엘, 헤즈볼라 미사일 생산 지원 레바논 기업 제재
  - 2.6 「간츠」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위해 정밀 미사일 생산용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레바논 기업체 3곳의 자산을 압류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발표
    - \* 同 기업들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향후 미사일 생산 차질 예상
- 이란 법원, 미국 근거 반정부 무장조직 지도자 재판 개시
  - 2.7 이란 사법부는 자국 내 '쉬라즈 모스크 테러('08.4, 사망 14명)' 등 총 23건의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'20년 체포된 '톤다르\*'의 지도자 「잠시드 샤프르마흐드」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표
    - \* '79년 이슬람혁명으로 神政정부에 의해 축출된 「팔레비」 왕조의 복구를 추구

美 오하이오주 아프리카계 이주민 자행 정글刀 난자 테러

- '16.2.11, 18시경 美 콜럼버스市(오하이오주의 州都) 소재 한 지중해식 식당(식당명 : Nazareth)에 진입한 한 남성이 갑자기 정글刀(Machete, 마체테)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, 4명 부상
- 조사 결과, 범인은 '00년부터 미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 종사해온 아프리카 기니 출신 「모하메드 배리\*」(30세)로
  - \* FBI는 사건 발생 4년전부터 이미 대상자가 극단주의 성향을 지닌 것을 인지 후 감시
  - 사건 당일, 먼저 식당에 들러 주인 출신지를 탐문, '이스라엘'이라는 답변을 듣자 정글刀를 들고 다시 돌아와 점포 방문객 등을 난자
  - 범행 후 차량 도주 중 경찰 저지로 진로가 막히자 정글刀를 들고 "알라후 아크바르"(神은 위대하다)를 외치며 저항하다 총격을 받고 사망
- FBI는 이번 사건을 '외로운 늑대'형의 자생적 테러로 판단했으며, 백악관 역시 최종적으로 '테러 공격'으로 분류

< 정글도(마체테)와 국내 소지허가 대상 도검 >

- 정글도(Machete, 마체테): 사탕수수를 베거나 밀밭에서 나무 등을 잘라 길을 낼 때 사용하는 날이 넓고 무거운 긴 칼로, 간혹 흉기로도 악용
- 국내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총안법)에서는 무기와 흉기로 쓰일 우려가 있는 **도검**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도록 엄격히 규제 中
- '도검'이란 ①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·검·창·치도(창 겸용 칼)·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,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②칼날 길이 6cm 이상의 잭나이프 및 ③칼날 길이가 5.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퍼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(총안법 및 시행령)
- ※ △칼(도, 刀)은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것이고 검(劍)은 양쪽 날이 모두 서 있는 것이며, △잭나이프는 (캠핑·서바이벌용 등의) 접이식 칼이고 비출나이프는 자동 접이식 칼

소지 허가 대상 도검류 예	소지 허가 불요 도검류 예
수련용 진검, 칼날 길이 8cm 잭나이프 등	식도, 과도, 회칼, 마체테, 도끼, 낫 등